

조선 속종조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하급관원 복식

이 주 영* · 장 현 주⁺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 ·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Low-Level Officials' Costumes as Illustrated in *Tamna-Sullyeokdo* at the Era of King *Sukjong* of the *Joseon* Dynasty

Joo-Young Lee* · Hyun-Joo Jang⁺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Myo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7. 6. 6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ress and its ornaments of low-level officials shown in *Tamna-Sullyeokdo*, the paintings of the inspection tour of Jeju Island. The low-level officials include low-level soldiers—*sungjunggun*, *gichigun*, foot soldiers, cavalries, *gunroe*, *ilsu*, artillerymen, *najang*, and *sawon*—, musicians, servants, and *kisaengs* in government employ.

1. Different types of low-level soldiers tended to wear different kinds of clothes that is worn under an outer garment and to wear different coats and trousers depending on an outer garment. That is, *sungjunggun*, *gichigun*, foot soldiers, and cavalries wore *jeonbok* over a *jeogori* and *baji*. On the other hand, *gunroe*, *ilsu*, artillerymen, and *najang* wore *houi* or *jakui* over a *jeogori* and *baji*. However, *Sawon* simply wore *jeonbok* or armor or they wore *Cheolik* in formal occasions.

2. Musicians wore a *jeonlib*, a type of hat, decorated with an ear of barley and a red *houi* over a *Jungchimak*, a man's outer coat with large sleeves. Musicians wore colorful red clothes in order to add to the amusement during military trainings or banquets.

3. Servants in government employ had their hair in plaits and wore a *jeonbok* over a *Jungchimak* or *baji* and *jeogori*. However, when they dance during banquets, they wore *cheolik* and *jeonlib* decored with/without an ear of barley or red flowers.

4. *Gisaengs* in government employ wore a *gache* on their head and *wonsam*, a woman's full dress during big occasions. They, on the other hand, wore a *jeogori* and *chima* for regular occasions.

Key words: *Tamna-Sullyeokdo*(탐라순력도), low-level officials(하급관원), *jeonbok*(전복), *jeonlib*(전립), *Jungchimak*(중치막)

I. 서론

본 연구는 “조선 숙종조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상급관원 복식”¹⁾의 후속연구로서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하급관원 복식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한 것이다.

전보에서 밝혔듯이 《탐라순력도》는 조선시대 숙종 28년(1702년) 병와 이형상(1653-1733)이 제주 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에 부임하여 제주도 내 각 고을을 순력하면서 당시 거행되었던 행사장면과 자연, 역사, 산물, 풍속 등을 화공 김남길로 하여금 그리게 한 40폭의 화첩이다. 《탐라순력도》는 제주도 지도인 한라장축 1면과 1702년의 행사기록도 39면, 호연금서 1면, 이형상이 적은 화기 2면 등 모두 43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목사, 판관, 현감, 군관 등의 상급관원과 악공, 나장, 마군, 보군, 기패관, 성정군 등의 하급관원, 그리고 해녀, 목자, 남녀노인 등 순력행사와 관련된 여러 인물과 그들이 입은 복식이 그려져 있다. 《탐라순력도》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이루어진 순력행사에 참가한 각 신분별 착용 복식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복식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하겠다.

지금까지의 관원복식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상급관원의 복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하급관원의 복식은 간략하게 설명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하급관원의 복식을 심도 있게 고찰함으로써 부족하나마 조선시대 숙종조 하급관원의 복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탐라순력도》에 그려져 있는 하급관원의 명칭을 정리한 다음, 각 하급관원별로 착용한 복식에 관하여 관모, 의복, 대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탐라순력도》에는 하급관원이 상급관원에 비해 작게 그려져 있고, 반차도, 조선통신사행도와 같이 각 인물의 신분이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하급관원의 명칭을 규명하기 위하여 《탐라순력도》에 기술된 설명을 주로 참고하면서 《남환박물》, 《탐라지》등 이 시기 제주지역의 문화와 풍습을 알 수 있는 문헌자료를 참고하였다. 다

음으로, 착용복식의 고찰에 있어서는 《탐라순력도》에 묘사된 하급관원들의 복식이 소략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복식의 형태와 색상이 명확한 행사도 39점을 선별하여 의복의 종류와 색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II. 제주지역 하급관원의 명칭과 역할

《탐라순력도》는 반차도, 조선통신사행도와 달리 인물만 그려져 있고, 인물 옆에 인물의 직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화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윗부분에는 그림의 제목이 적혀 있고, 중간 부분에는 김남길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아랫부분에는 행사에 참가한 주요 신분과 인원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내용과 실제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더욱이 목사, 판관, 현감, 군관 등 주로 상급관원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탐라순력도》에 묘사된 하급관원에 대하여 정확한 명칭을 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탐라순력도》는 모두 4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사내용에 따라 군사훈련, 하례의식, 활쏘기 경연, 사냥 및 방사, 시험 및 심사, 연향 등과 같은 순력일반행사와 봉진, 탐승, 미신타파 등과 같은 제주지역의 특별행사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하급관원의 명칭은 순력일반행사에만 기록되어 있으며, 〈표 1〉은 이들의 명칭과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탐라순력도》 외에 제주지역의 관원 및 군병 등에 관하여 고찰하기 위하여 《탐라지》와 《남환박물》을 참고할 수 있다. 《탐라지》는 효종 4년(1653년)에 당시 제주목사인 이원진이 제주도를 제주, 정의현, 대정현으로 구분하여 풍속, 장관, 군병, 인물 등에 관해 기록한 책이다. 기록을 보면 제주도에는 관원(목사, 판관, 현감, 교수, 심약, 검률, 왜훈도), 군병(기병, 보병, 잡색군, 아병, 차비군, 속오군), 노비(관노비, 내수사노비, 각사노비, 대군노비, 교노비) 등이 있다고 되어 있다²⁾. 《남환박물》은 숙종 30년(1704년)에 이형상이 제주목사에서 이임한 후 제주목사로 재임하던 당시 제주의 물정 전반

<표 1> 《탐라순력도》에 기록된 하급관원의 명칭과 규모

행사내용	행사명	하급관원의 명칭	각 지역별 하급관원의 규모
군사훈련	조점	성정군	대정현(224명), 제주목(1263명), 별방진(423명), 조천진(423명), 정의현(664명), 서귀진(68명), 명월진(412명), 애월진(245명)
	성조	성정군	화북진(172명), 수산진(80명)
	점부	방군, 기병, 보병	모슬진(24명), 서귀진(20명)
	시사	사원	별방진(208명), 명월진(141명)
	강사	사원	정의현(87명), 대정현(21명)
시험 및 심사	제주전첩	기패관, 사원	기패관(94명), 사원(322명)
사냥 및 방사	교래대렵	마군, 보졸, 포수	마군(200명), 보졸(400여명), 포수(120명)
	산장구마	결책군, 구마군	결책군(2602명), 구마군(3720명)

에 걸쳐서 직접 관찰한 바를 토대로 기록한 지방지이다. 기록을 보면 제주도에는 지공(차비군, 성정군, 유직군, 기치군, 기보병, 관리, 진무, 취수, 나장, 군뢰, 관노 등), 지노비(관기, 관비 등), 지리(리, 소동, 진무, 의생, 율생, 한역생, 왜역생, 통인 등)이 있다고 되어 있다.³⁾

이상 《탐라순력도》, 《탐라지》, 《남환박물》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해 볼 때, 당시 제주지역 하

급관원의 명칭에는 성정군, 기치군, 보군, 마군, 군뢰, 일수, 포수, 나장, 사원, 약공, 관노, 관기, 통인, 검률, 심약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표 2>는 이들의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

Ⅲ. 하급관원 복식의 유형과 특성

탐라순력 행사에 동원된 하급관원에는 성정군, 기

<표 2> 제주지역 하급관원의 명칭과 역할¹⁾

하급관원의 명칭	역할
성정군	성을 지키기 위하여 성곽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군사.
기치군	旛箭, 貫耳, 纛 등의 의장물과 旗幟를 들고 있는 의장수로서, 기패관이라고도 함. 조선시대 훈련도감의 종9품 무관직으로 군기에 관한 일을 담당함.
보군	걸어 다니면서 전투하도록 훈련된 군인으로서 보병이라고도 함.
마군	마군은 말을 타고 싸우는 군인으로서 기병이라고도 하며, 이들은 말을 준비해야 했으므로 보군보다 대개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호로 구성되었고 奉足의 수도 많았음.
군뢰	죄인을 관리하던 병졸.
일수	각 지방의 관아에 소속되어 잡무에 종사하는 사람. 주 임무는 使客의 음식물과 일용품을 공급하는 것이었으나 기타 광범위한 잡역에도 종사함.
포수	총을 지니고 있는 병사로서 조점, 성조 등 군사훈련을 점검하는 순력행차에서 목사가 탄 가마 및 말을 호위하는 역할을 주로 함.
나장	경비, 순찰, 죄인 문초시 옥졸의 역할을 함.
사원	활을 쏘는 군사로서 조점, 시사, 강사 등의 순력행사에 참여함.
약공	조선시대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국가, 궁중의식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사람. 취라치(사역인의 뜻을 가진 몽고어에서 유래되었으며 각 또는 나로 기록되는 나팔을 부는 군사)와 태평소(태평소를 부는 군사) 등이 있음.
관노	국가 공공기관에 소속된 노비로서 공천, 공천노비, 공노비라고도 함.
관기	춤, 노래, 풍류로 주연석이나 유흥장에서 흥을 돋우는 일을 함.
통인	조선시대 지방관아에 딸린 吏屬이며 수령의 侍童으로 사환, 수령의 행차수행, 명령전달 등의 일을 맡았음. 수령의 印과 관물을 관리하는 임무도 맡아 知印이라고도 함.
검률	종9품의 관원. 율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심약	의관 동반 종 9품직. 지방에서 채취하여 상납하는 약재를 심사하고 감독함.

치군, 보군, 마군, 군퇴, 일수, 포수, 나장, 사원 등을 포함하는 하급군졸과 악공, 관노, 관기 등이 있다.

1. 하급군졸의 복식

1) 성정군, 기치군, 보군, 마군의 복식

성정군은 성을 지키기 위하여 성곽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군사를 말하며, 《남환박물》에 그 수가 2800여명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⁴⁾. 기치군은 旛箭, 貫耳, 纛 등의 의장물과 旗幟를 들고 있는 의장수를 말하며, 《남환박물》에 그 수가 200여명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⁵⁾. 《탐라순력도》에는 깃발 외에 월도와 화살통을 든 사람도 보이는데, 이들의 복장이 기치군의 복장과 동일하므로 이들을 기치군에 포함하여 고찰하였다. 보군은 걸어 다니면서 전투하도록 훈련된 군인으로서 보병⁶⁾이라고도 한다. 마군은 말을 타고 싸우는 군인으로서 기병⁷⁾이라고도 하며, 이들은 말을 준비해야 했으므로 보군보다 대개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호로 구성되었고 奉足의 수도 많았다⁸⁾. <표 3>는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성정군, 기치군, 보군, 마군의 복식을 정리한 것이다.

<표 3>에 의하면 성정군, 기치군, 보군, 마군은 탐라순력의 모든 행사, 즉 군사훈련, 사냥 및 방사, 시험 및 심사, 연향, 진상, 탐승 등의 행사에서 일관

되게 전립을 쓰고, 저고리·바지를 입고 그 위에 흑색 전복을 입고 소색 대를 들렀다. 다만, 저고리·바지의 색상으로 성정군과 기치군은 소색을 주로 사용하였고, 보군과 마군은 소색 외에 두록색도 사용하였다(그림 1-4).

한편, 마군은 이러한 차림 외에 상모장식이 된 전립을 쓰고 두록색 의고와 흑색전복을 입거나, 상모장식이 된 투구를 쓰고 녹색 저고리·바지를 입고 그 위에 소매가 없는 갑옷을 입는 등 전혀 다른 옷차림을 하기도 하였다(그림 5). 즉, 마군은 행사에 따라 흑색 전복과 갑옷을 입는 이중성을 보이는데, 일반 군사훈련을 할 때는 흑색 전복과 갑옷을 편한대로 입었으나, 몸을 경첩해야하는 사냥과 같은 행사에서는 갑옷보다 가볍고 탈착이 용이한 흑색 전복을 입어 활동의 편의를 도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성정군, 기치군, 보군, 마군은 순력행사에서 주로 전립을 쓰고, 소색 또는 두록색의 저고리·바지를 입고 그 위에 흑색 전복을 입고 소색대를 두르는 거의 동일한 복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저고리·바지 위에 바로 전복을 입음으로써 하급군졸 중에서도 가장 간소하고 격이 낮은 옷차림을 하였다.

<표 3>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성정군, 기치군, 보군, 마군의 복식

하급군졸	행사의 성격(행사명)	착용 복식			착용 횟수
		관모	의복	대	
성정군	군사훈련(조점, 성조, 점부)	전립	소색 衣袴+흑색 전복	소색대	11
기치군	군사훈련(조점, 성조, 점부, 배전, 試射, 강사, 사회) 활쏘기경연(사후) 사냥 및 방사(대렵) 연향(양로) 시험 및 심사(試士, 전최, 점마) 진상(봉진) 탐승(방고, 관굴, 탐승)	전립	소색 衣袴+흑색 전복	소색대	32
보군	군사훈련(배전) 사냥 및 방사(대렵) 시험 및 심사(점마) 탐승(방고, 관굴, 탐승)	전립	소색 衣袴+흑색 전복(4) 두록색 衣袴+흑색 전복(2)	소색대	6
마군	군사훈련(조점, 점부)	전립(상모)	두록색 衣袴+흑색 전복(5)	소색대	9
	사냥 및 방사(대렵)	전립	소색 衣袴+흑색 전복(4)		
	군사훈련(조점)	투구(상모)	녹색 衣袴+무수갑옷		1



〈그림 1〉 성정군 복식
(탐라순력도, p.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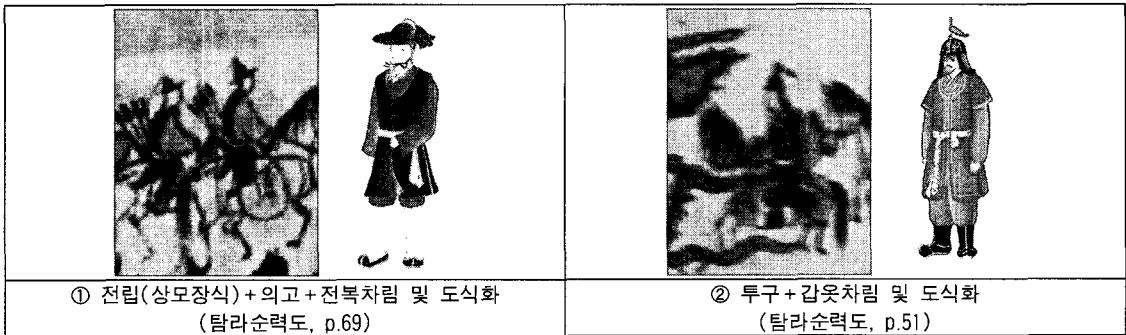
〈그림 2〉 기치군 복식
(탐라순력도, p. 27)



〈그림 3〉 보군 복식
(탐라순력도, p. 31)



〈그림 4〉
성정군·기치군·
보군복식의 도식화



〈그림 5〉 마군 복식

2) 군뢰, 일수, 포수의 복식

군뢰는 죄인을 다루는 일을 한 사람으로서 죄인을 문초하거나 압송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일수는 각 지방의 관아에 소속되어 잡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 임무는 使客의 음식물과 일용품을 공급하는 것이었으나 기타 광범위한 잡역에도 종사하였다⁹⁾. 포수는 총을 지니고 있는 병사로서 조정, 성조 등 군사훈련을 점검하는 순력행차에서 목사가 탄 가마 및 말을 호위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 <표 4>는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군뢰, 일수, 포수의 복식을 정리한 것이다.

<표 4>에 의하면 군뢰, 일수, 포수는 탐라순력의 모든 행사, 즉 군사훈련, 사냥 및 방사, 시험 및 심사, 연향, 진상, 탐승 등의 행사에서 걸옷으로 일관되게 홍색 호의를 입고, 허리에 소색 대를 둘렀다. 이들은 주로 목사 주위를 호위하거나 이동할 때 앞

장서서 걸어가는 등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행사의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다소 화려한 색상인 홍색을 입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호의 안에 입은 옷을 보면, 군뢰는 중치막을 입기도 하고 저고리·바지를 입기도 하였으나, 일수는 중치막을 주로 입고, 포수는 저고리·바지를 주로 입었다. 중치막과 저고리·바지의 색상을 보면, 중치막의 경우 총 40회 중 두록색이 26회, 소색이 11회, 녹색이 3회로 두록색이 주로 사용되었고, 저고리·바지의 경우 총 10회 중 소색이 7회, 두록색이 3회로 소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중치막과 저고리·바지의 착용회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중치막과 저고리·바지를 모두 입은 군뢰의 경우를 보면, 호의차림 총 41회 중 중치막이 32회이고, 저고리·바지가 9회인 것으로 보아 호의 안에는 중치막이 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군뢰, 일수, 포수의 복식

하급군졸	행사의 성격(행사명)	착용 복식			착용 횟수
		관모	의복	대	
군뢰	군사훈련(조점,점부,성조,배전,試射, 강사,사회) 시험 및 심사(試上,전취,점부) 연향(양로) 진상(봉진) 탐승(방고,탐승)	주전립(상모:18회) 전립(맥수:14회)	녹색 중치막+홍색 호의(3) 두록색 중치막+홍색 호의(22) 소색 중치막+홍색 호의(7)	소색대	41
	군사훈련(조점,성조,試射) 시험 및 심사(점마) 연향(양로)	주전립(상모:8회) 전립(맥수:1회)	두록색 衣袴+홍색 호의(3) 소색 衣袴+홍색 호의(6)		
일수	군사훈련(조점,점부,배전,사회) 시험 및 심사(試上,전취) 진상(봉진)	전립(맥수:2회) 조건(6회)	두록색 중치막+홍색 호의(4) 소색 중치막+홍색 호의(4)	소색대	8
포수	군사훈련(조점)	조건(혹술)	소색 衣袴+홍색 호의(1)	소색대	2
	사냥 및 방사(대렵)	조건	두록색 衣袴+흑색 전복(1)		

이상에서 군뢰, 일수, 포수는 순력행사에서 모두 중치막 또는 저고리·바지를 입고 그 위에 홍색 호의를 입고 소색 대를 두르는 거의 동일한 복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로 비슷한 복장으로 인해 이들의 직급 또한 비슷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들이 착용한 관모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관모의 종류와 장식에 따라 어느 정도 상하가 구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군뢰는 상모장식이 된 주전립과 맥수장식이 된 전립을 썼고(그림 6), 일수는 맥수장식이 된 전립과 조건을 썼으며(그림 7), 포수는 흑술이 달린 조건을 썼는데(그림 8), 상모장식이 된 주전립

이 가장 상위의 관모이고, 그 다음이 맥수장식이 된 전립, 흑술이 달린 조건 등의 순이므로 이들의 직급 또한 군뢰, 일수, 포수의 순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포수는 행사에 따라 홍색 호의와 흑색 전복을 입는 이중성을 보인다. 즉 포수는 군사훈련을 할 때는 홍색 호의를 입었으나, 사냥할 때에는 전술한 성정군, 기치군, 보군, 마군 등과 같이 저고리·바지 위에 흑색 전복을 입었다(그림 8). 포수가 사냥할 때 흑색 전복을 입은 것은 흑색이 홍색보다 몸을 숨기거나 위장하기가 더 쉽고, 오염도 덜 타는 실용적인 색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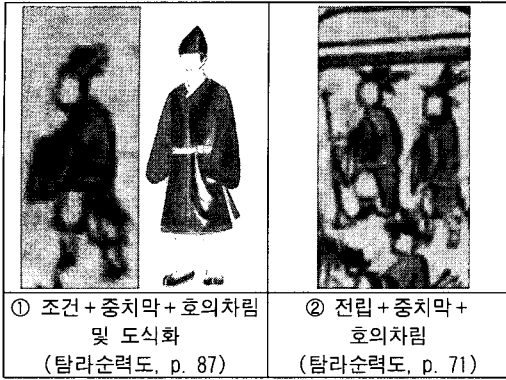


① 주전립+의고+호의차림 및 도식화(탐라순력도, p.47)

② 주전립+중치막+호의차림 및 도식화(탐라순력도, p.55)

③ 전립+중치막+호의차림 및 도식화(탐라순력도, p.25)

<그림 6> 군뢰 복식



〈그림 7〉 일수 복식



〈그림 8〉 포수 복식

3) 나장의 복식

나장은 병조 소속의 경아전 및 외아전으로서 각 급 진에 배속되기도 했으며, 죄인을 문초할 때 매질하는 일, 귀양 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 등을 했다. <표 5>는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나장의 복식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나장의 복식

행사의 성격(행사명)	착용 복식			착용횟수
	관모	의복	대	
군사훈련(조점,성조,배진,사회) 시험 및 심사(試士,전취) 연향(양로) 진상(봉진) 탐승(방고)	전립(맥수)	녹색 중치막+작의(1) 두록색 중치막+작의(11) 소색 중치막+작의(5)	소색대(12) 홍색대(5)	17

<표 5>에 의하면 나장은 군사훈련, 시험 및 심사, 연향, 진상, 탐승 등의 행사에서 일관되게 맥수장식이 된 전립을 쓰고, 중치막을 입고 그 위에 흑색 줄무늬가 있는 백색 無袖衣, 즉 작의를 입었다(그림 9). 중치막의 색상은 착용회수 총 17회 중 두록색이 11회, 소색이 5회, 녹색이 1회로 두록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대의 색상은 소색이 12회, 홍색이 5회로 소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홍색 대는 군사훈련 중 가장 큰 행사인 조점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보아 홍색 대가 소색 대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림 9〉 나장 복식과 도식화(탐라순력도, p. 87)

4) 사원의 복식

사원은 활을 쏘는 군사로서 <탐라순력도>의 조점, 시사, 강사 등의 행사에 사원에 관한 기록이 있다. 즉 별방조점 행사에 208명, 명월시사에 141명, 정의강사에 87명, 대정강사에 21명 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규모의 사원이 활쏘기 대회 등의 군사훈련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표 6>은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사원의 복식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사원의 복식

행사의 성격(행사명)	착용 복식			착용 횟수
	관모	의복	대	
군사훈련(사회,강사) 시험 및 심사(전최)	전립(백수;3회) 전립(1회)	두록색 철릭	소색대	4
군사훈련(조집,성조,점부,試射,강사) 활쏘기 경연(사후)	전립(상모;7회)) 전립(3회)	소색 衣袴+흑색 전복(5) 두록색 衣袴+흑색 전복(5)	소색대	10
군사훈련(조집,성조)	투구(상모)	두록색 衣袴+무수 갑옷(3) 소색 衣袴+무수 갑옷(5)	소색대	8



<그림 10> 사원 복식

① 철릭 차림

<표 6>에 의하면 사원은 군사훈련, 시험 및 심사 등의 행사에서 전립 또는 백수장식이 된 전립을 쓰고, 두록색 철릭을 입고 소색 대를 들었다(그림 10-①). 前報에의하면 철릭은 탐라 순력 행사에서 주로 목사, 판관, 현감, 군관 등 상급관원의 용복으로 착용되었던 포제인데, 하급관원인 사원이 입은 것으로 보아 사원의 경우 가장 격식을 갖추는 행사에서 철릭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전복 차림

<표 6>에 의하면 사원은 군사훈련을 하거나 활쏘기 경연을 할 때, 전립 또는 상모장식이 된 전립을 쓰고, 소색과 두록색의 저고리·바지를 입고 그 위에 흑색 전복을 입고 소색 대를 들었다(그림 10-②). 이러한 차림은 전술한 성정군, 기치군, 보군, 마군, 포수의 복장과 동일하다.

③ 갑옷 차림

<표 6>에 의하면 사원은 군사훈련을 할 때, 상모 장식이 된 투구를 쓰고 소색과 두록색의 저고리·바지를 입고, 그 위에 소매가 없는 갑옷을 입고 소색 대를 들었다(그림 10-③). 이러한 차림은 전술한 마군의 갑옷차림과 동일하다.

2. 악공의 복식

악공은 넓은 의미로는 음악을 맡은 工人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조선시대에 양인출신 악인을 악생이라 하고 공천출신 악인을 악공이라 지칭한데서 비롯된 명칭이다.¹⁰⁾ 이들은 전악서, 아악서 및 관습도감에 소속되어 속악(향악)을 연주하였다. <표 7>은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악공의 복식을 정리한 것이다.

<표 7>에 의하면 악공은 군사훈련을 할 때 곁옷으로 항상 홍색 호의를 입었다. 호의 안에 입은 옷을 보면, 호의차림 총 10회 중 중치막이 9회, 저고

〈표 7〉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악공의 복식

행사의 성격(행사명)	착용 복식			착용회수
	관모	의복	대	
군사훈련(조점,점부,강사)	전립(백수)	소색 중치막+홍색 호의(2) 두록색 중치막+홍색 호의(6) 녹색 중치막+홍색 호의(1)	소색대	9
군사훈련(성조)	전립	소색 衣袴+홍색 호의(1)	소색대	1



〈그림 11〉 악공 복식과 도식화(탐라순력도, p. 87)

리·바지가 1회로 중치막이 주로 착용되었다. 중치막의 색상은 착용회수 총 9회 중 두록색이 6회, 소색이 2회, 녹색이 1회로 두록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악공은 군사훈련을 할 때 주로 백수장식이 된 전립을 쓰고, 중치막을 입고 그 위에 홍색 호의를 입고, 소색 대를 둘렀음을 알 수 있다(그림 11). 이 외에 드물게 전립을 쓰고, 저고리·바지를 입고 그 위에 홍색 호의를 입고 소색 대를 두르는 간소한 차림을 하기도 하였다.

악공 역시 전술한 군뢰, 일수, 포수와 마찬가지로 가장 겉옷으로 항상 홍색 호의를 입었다. 이는 이들이 훈련에 직접 참가하지 않으면서 훈련시 또는 연회시에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다소 화려한 색상인 홍색을 입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3. 관노의 복식

관노는 국가 공공기관에 소속된 노비로서 공천, 공처노비, 공노비라고도 불리었다. 이들은 공적기관에 소속되어 신분이 규정되었으므로 일정한 勞務 또는 人頭稅가 부과되었고, 私賤보다는 사회적 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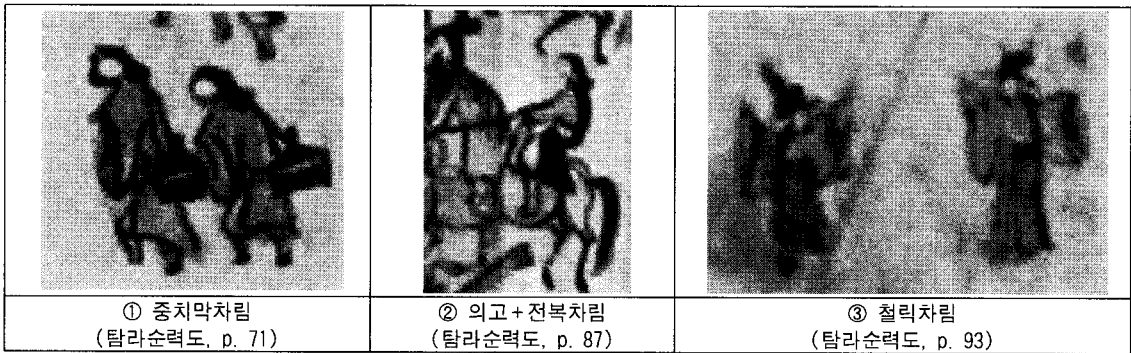
면에서 상위였다¹¹⁾. 〈표 8〉은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관노의 복식을 정리한 것이다.

〈표 8〉에 의하면 관노는 군사훈련을 할 때 머리를 뒤로 길게 뺏아 내리고, 두록색 중치막을 입거나(그림 12-①), 또는 두록색 저고리·바지 위에 흑색 전복을 입고 허리에 소색 대를 둘렀다(그림 12-②). 관노가 저고리·바지 위에 흑색 전복을 입은 차림은 전술한 성정군, 기치군, 마군, 보군, 포수, 사원의 복장과 동일하다.

한편, 탐라순력 중 연향, 탐승 등의 행사를 보면, 춤을 추는 舞童의 모습이 보인다. 조선통신사행에서 연회시 춤을 추었던 사람은 통인, 즉 윗사람 곁에서 주로 잔심부름을 하였던 관노였으므로¹²⁾ 탐라순력 행사에서도 춤을 추는 사람은 전문 무용인이 아니라 역시 통인의 역할을 하였던 관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연향, 탐승 등의 연회적 성격을 띤 행사에서 관노는 전립 또는 백수장식이 된 전립, 붉은 꽃장식이 된 전립 등을 쓰고, 두록색 또는 녹색의 철릭을 입고, 소색 대를 두르고 춤을 추었다(그림 12-③). 前報에 의하면 철릭은 주로 상급 관원의 용복으로 착용되었는데, 하급관원인 관노가 철릭을 입

<표 8>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관노의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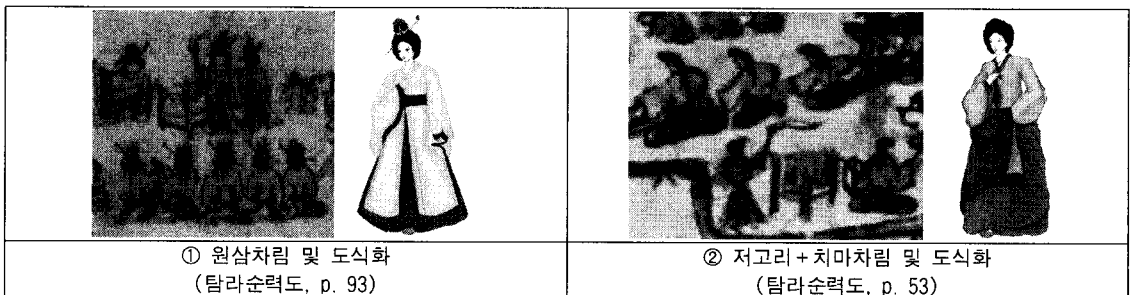
행사의 성격(행사명)	착용 복식			착용 회수
	머리모양	의복	대	
연향(양로) 탐승(탐승)	전립 전립(맥수) 전립(꽃장식)	두록색 철릭(2) 녹색철릭(1)	소색대	3
군사훈련(조점,배전)	땅은 머리	두록색 증치마(1) 두록색 衣袴+흑색 전복(1)	소색대	2



<그림 12> 관노 복식

<표 9>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관기의 복식

행사의 성격(행사명)	착용 복식			착용 회수
	머리모양	의복	대	
연향(양로)	없은 머리	황색원삼+홍색 치마	홍색대	1
군사훈련(사회) 연향(양로) 탐승(풍악,범주,탐승)	없은 머리	두록색 저고리+홍색 치마(4) 두록색 저고리+두록색 치마(1) 비취색 저고리+홍색 치마(1) 황색 저고리+홍색 치마(2)	-	8



<그림 13> 관기 복식

은 것은 연희시 무용복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들은 前報에서 살펴본 상급관원과는 달리 행사의 성격이 바뀌어도 옷차림은 동일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관기의 복식

관가에 딸린 기생으로 군사훈련, 연향, 탐승 등의 행사에서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식을 나르는 일 등을 하였다. <표 9>는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관기의 복식을 정리한 것이다.

<표 9>에 의하면 관기는 큰 행사에서는 얇은 머리를 하고 황색 원삼과 홍색 치마를 입고 홍색 대를 들렀고(그림 13-①), 일반적인 행사에서는 두루색, 비취색, 황색 등의 저고리를 입고 두루색과 홍색의 치마를 입었다(그림 13-②).

이상에서 살펴본 하급관원의 복식을 도식화로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에 의하면 하급관원

IV. 결론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하급관원은 크게 하급군졸(성정군, 기치군, 보군, 마군, 군퇴, 일수, 포수, 나장, 사원), 악공, 관노, 관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의 복식에 관하여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급군졸에는 성정군, 기치관, 보군, 마군, 군퇴, 일수, 포수, 나장, 사원 등이 포함된다. 성정군, 기치군, 보군, 마군은 순력행사에서 주로 전립을 쓰고, 저고리·바지를 입고 흑색 전복을 덧입고 소색 대를 들렀다. 군퇴, 일수, 포수는 주로 주전립을 쓰

<표 10> 하급관원 복식의 도식화

성정군	기치군	보군	마군		
	군퇴		일수	포수	나장
	사원		악공	관기	

고, 중치막을 입고 홍색 호의를 덧입고 소색 대를 들렀다. 나장은 항상 맥수장식이 된 전립을 쓰고, 중치막을 입고 작의를 덧입고 소색 대를 들렀다. 사원은 군사훈련, 시험 및 심사와 같이 격식을 갖추는 행사에서는 주로 백수장식이 된 전립을 쓰고, 철릭을 입고 소색 대를 들렀으나, 일반적인 군사훈련을 할 때는 상모장식이 된 전립을 쓰고, 저고리·바지를 입고 전복을 덧입고 소색 대를 두르기도 하고, 상모장식이 된 투구를 쓰고 갑옷을 덧입고 소색 대를 두르기도 하였다.

2. 하급군졸은 겉옷으로 전복, 호의, 작의, 갑옷 등의 소매가 없는 의복을 입었는데, 겉옷 안에 받쳐입는 의복과 겉옷의 종류에 따라 상하가 구별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하급군졸 중에서 성정군, 기치관, 보군, 마군은 저고리·바지 위에 바로 전복을 덧입어 가장 간소한 복장을 하였고, 군뢰, 일수, 포수, 나장은 포제인 중치막을 입고 호의나 작의를 덧입어 다소 격식을 갖춘 복장을 하였다. 사원은 저고리·바지 위에 바로 전복이나 갑옷을 덧입어 성정군, 기치관, 보군, 마군 등과 같이 간소한 복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때로 상급관원의 융복인 철릭을 입어 최대한 격식을 갖춘 복장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군뢰, 일수, 포수는 목사 주위를 호위하거나 이동할 때 앞장서서 걸어가는 등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겉옷으로 다른 하급군졸들이 흑색을 입는 것과 달리 화려한 색상인 홍색을 주로 입었는데, 이는 행사의 시각적 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악공은 순력행사에서 주로 맥수장식이 된 전립을 쓰고, 중치막을 입고 홍색 호의를 덧입고 소색 대를 들렀다. 악공은 하급군졸인 군뢰, 일수, 포수와 마찬가지로 겉옷으로 항상 홍색 호의를 입었는데, 이는 이들이 군사훈련에 직접 참가하지 않으면서 군사훈련시 또는 연회시에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화려한 색상인 홍색을 입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4. 관노는 군사훈련을 할 때는 머리를 뒤로 길게 땀아 내리고, 저고리·바지 또는 중치막을 입고 흑색 전복을 덧입고 소색 대를 들렀다. 이러한 차림은

전술한 성정군, 기치관, 보군, 마군, 포수, 사원의 차림과 동일하다. 그런데 관노는 연향, 탐승 등 연회적 성격을 띤 행사에서 춤을 출 때는 전립 또는 맥수장식이나 붉은 꽃장식이 된 전립을 쓰고, 두록색 또는 녹색의 철릭을 입고 소색 대를 들렀다. 탐라순력행사에서 철릭은 주로 상급 관원의 융복으로 착용되었는데, 하급관원인 관노가 철릭을 입은 것은 연회시 무용복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5. 관기는 큰 행사에서는 엷은 머리를 하고 황색 원삼과 홍색 치마를 입고 홍색 대를 들렀고, 일반적인 행사에서는 두록색, 비취색, 황색 등의 저고리를 입고 두록색과 홍색의 치마를 입었다.

참고문헌

- 1) 장현주, 이주영 (2007). 조선 속종조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상급 관원복식. 복식, 57(3), pp. 108-123.
- 2) 이원진 저, 김찬홍 외 7 옮김 (2002). 역주 탐라지. 서울: 푸른역사, pp. 21-22, pp. 152-156, p. 222, pp. 238-239, p. 244, pp. 258-259. <탐라지>는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인물, 시문 등을 수집하여 편찬한 것으로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읍지이다.
- 3) 이형상 (1980). 남환박물.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134-136, pp. 150-153.
- 4) 이형상 (1980). 앞의 책, p. 136.
- 5) 이형상 (1980). 앞의 책, p. 136.
- 6) 이형상 (1980). 앞의 책, p. 136.
- 7) 이형상 (1980). 앞의 책, p. 136.
- 8) 한우근, 이성무, 이태진, 민현구, 권오영 번역 (2006). 譯註 經國大典 註釋篇,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p. 617.
- 9) 한우근, 이성무, 이태진, 민현구, 권오영 번역 (2006). 앞의 책, p. 578.
- 10) 한우근, 이성무, 이태진, 민현구, 권오영 번역 (2006). 앞의 책, p. 445.
- 11) 한우근, 이성무, 이태진, 민현구, 권오영 번역 (2006). 앞의 책, p. 720.
- 12) 이주영, 권영숙 (2007). 조선통신사행도를 통해 본 小童의 역할과 복식. 복식, 57(5), pp. 34-35.